

'제3의 시각' 강조된 한국전쟁 연구서

외국학계의 편향적 이론 비판... 國內外的 요인의 균등한 가치평가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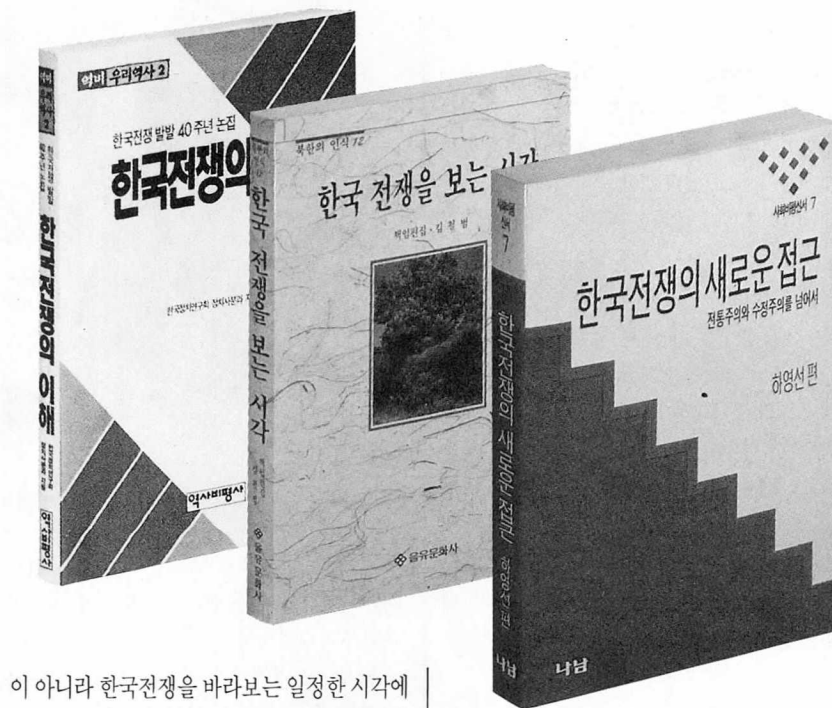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자료의 부족과 이데올로기적 제약에 의해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따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으로 여겨져 객관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의' 한국전쟁에 대한 학계의 고의적 망각이 70년대 이후 외국학계에 의해 먼저 극복되면서 그것의 의미가 활발하게 재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70년대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이때부터 국제관계가 화해무드로 물꼬가 틀어지면서 냉전의 부산물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衆論이다. 더욱이, 한국전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들이 기밀문서분류로부터 해제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중국·소련 등 전쟁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국가들이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학자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손쉬워진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대립적인 두개의 해석

외국학계의 한국전쟁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우리학계는 그간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80년대 이후 국내정치학계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양질의 연구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까닭에 대해 김학준씨(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는 ▲한국의 현대사와 한국사회전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고조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팽배 ▲해외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학문연구성과의 신속한 도입과 이로 인해 자극된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안목의 성장 ▲한국전쟁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연구인들이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간의 학문적 성과의 축적을 디딤돌로 삼아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은 올해 3권의 연구서가 동시에 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김철범 엮음, 을유문화사)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하영선 엮음, 나남) 「한국전쟁의 이해」(한국정치사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역사비평사)가 바로 그것인데, 이들 책은 다같이 한 개인의 저작물



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에 동의하는 필자들의 공동저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책은 각기 다른 입지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학계의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에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제3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학계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론은 정통주의와 수정주의라고 불리는 대립적인 두개의 학문노선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주의는 한국전쟁의 '방화자'로서 "세계적화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 스탈린을 지목하는 학설이다. 소련의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이 미국의 단호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여기서 발생한 냉전체제의 한 극점으로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정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이같은 정통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을 수정주의라 부른다. 196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이후로 강력히 대두된 수정주의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근간을 미국내의 경제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이론이다. 즉, 미국이 소련의 침략적 태도에 대하여 방어적인 봉쇄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종전과 동시에 대소선제봉쇄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배후에는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전쟁에 관하여서는, 이 경향의 대표적 학자인 커밍스의 논리에 따르면 조선왕조 이후 누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의 해소를 위한 노력에 그 뿌리를 둔 계급투쟁적 성격으

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은 정통주의나 수정주의 모두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상황적 증거에 의한 추론적 분석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에 관한 객관적 연구를 위해서는 미·소 냉전의 논리라는 국제적 요인과 한반도 내부요인이 동시에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씌어진 책이다.

한국전쟁의 기원, 경과 그리고 결과 등에 관련지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쓴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핀 김학준의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을 비롯해 「한국전쟁의 의미」(라종일)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통일전략」(김점곤)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김철범)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정책」(김부기) 「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황병무) 「한국전쟁과 중소관계」(김유남)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박상섭) 「한국전쟁과 중립국의 역할」(김경수) 「한국전쟁의 양면성」(은창일) 順으로 짜여져 있다.

사실상 '제도권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씌어진 이 책은 '새로운 시각'보다 '보아온 시각'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국전쟁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의 지도아래 씌어진 6편의 석사논문과 엮음이의 논문이 수록된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은 새로운

접근방법론으로 '세계체제론'을 표나게 내세운 책.

한국현대사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체제, 남북한 분단체제 그리고 남북한의 국내체제의 동태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전개되어 왔다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 세분석단위의 동태적 상호작용관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이론틀로서 세계체제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체제란 "일정한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패권국가 혹은 주도국가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상호작용의 틀"을 일컫는 것.

따라서 이 책은 한국전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전쟁과 맞물려 있는 미국의 역할이라는 '국가 밖'으로부터의 작용을 분석수준으로 상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쟁에 대한 '국가 안'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체제를 분석수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체제와 국내체제의 상호유기적인 작용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이해」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안고 있는 이념적 편협성과 주관주의적 해석의 오류 및 격양된 냉전적 감정의 개입을 극복하고, 풍부한 역사적 사실의 천착과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사회과학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진보적 소장학자들의 공동연구서.

전체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전쟁연구서설」에 이은 2장에서는 한국전쟁의 국제적 배경과 원인을 다루고 있고, 3~4장에서는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으로서 남북한 정치사를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이 다루어졌고, 6~7장에서는 각각 북한의 남한점령정책과 미국의 전쟁정책을 다루고 있다. 8~9장은 중국참전의 배경과 전쟁중 북한의 정치실태가, 그리고 10~11장에는 휴전협정의 성립과정과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현단계 한국전쟁의 연구과제로 한국전쟁에 씌워졌던 온갖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왜곡을 극복하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전쟁의 성격규명과 현재적 의미를 추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소 '도전적'인 집단연구서다.

—이권우 기자